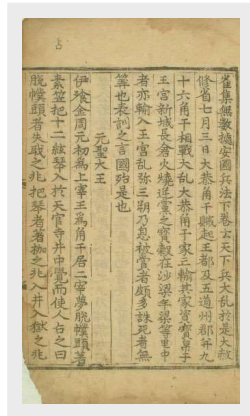


96각간의 난 신라 중대의 종말을 알리다

768년(혜공왕 4)



삼국유사(권2 기이 혜공왕)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96각간(角干)의 난은 신라 혜공왕(惠恭王) 시대에 발생한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이다. 일명 대공(大恭)의 난이라고도 한다. 혜공왕은 8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모후(母后)인 만월부인(滿月夫人)이 섭정(攝政)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에 천재지변이 잇따라 발생하여 정국이 불안하였다. 대공과 그의 동생 대렴(大廉)을 위시한 불만 세력은 이를 기회로 반란을 일으켰다. 96각간의 난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국적인 반란이었다. 반란은 3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신라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반란 진압 이후 혜공왕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반란이 남긴 상처를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혜공왕은 재위 14년(780)에 발생한 김지정(金志貞)의 난 중에 사망한다. 혜공왕의 사망으로 신라 중대는 종말을 고한다.

2 어린 왕의 즉위와 모후(母后)의 섭정(攝政)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군주 중 한 명인 경덕왕(景德王)은 자신의 형인 효성왕(孝成王)을 이어 즉위하여 24년간 신라를 통치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대규모 불사(佛事)를 진행하는 등 유능한 군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덕왕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덕왕은 아들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경덕왕 2년에는 왕비였던 삼모부인(三毛夫人)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無子)로 출궁시키고 새로이 만월부인과 혼인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아들을 얻기 위해 새롭게 혼인을 하였으나 경덕왕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있다. [관련사료](#) 경덕왕은 아들을 얻지 못하자, 당시의 고승이었던 표훈에게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표훈이 하늘에 올라가 상제에게 고하자 상제는 딸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들은 함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표훈이 이를 경덕왕에게 전하자 경덕왕은 나라가 위태로울지라도 아들을 얻길 바란다고 하였고, 결국 만월부인을 통해서 혜공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비록 불교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는 설화적 내용이지만 경덕왕이 아들을 얻기 위해 힘써 노력했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